

# 초등학생용 영어사전 앞다퉀 출간

## 원색그림의 입체적 구성이 특징

97년부터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가 포함되면서 최근 영어에 대한 관심이 유아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이같은 사회현상과 맞물려 서점가엔 어린이를 위한 영어사전이 한꺼번에 출간돼 영어교육의 열기를 짐작케 한다.

10여종에 이르는 어린이용 영어사전 가운데 특히 저학년용은 화려한 원색그림과 입체적인 지면 구성의 공통점을 지닌다. 어른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지는 어린이가 사전과 친해지도록 하기 위한 의도다. 이밖에도 일반사전보다 큰 판형을 이용한 점과 한영사전식 색인 등은 일반사전과 달리 눈에 띈다.

### 어린이에게 친숙한 그림 이용

어린이 영어사전의 선구자격은 94년에 나온 《국민학생을 위한 그림영어사전》(동아출판사). 한 단어에 그림 하나라는 원칙을 지키려 했다는 점과 정확한 발음을 위해 테이프를 부록으로 낸 점이 특이하다. 외국어 전문출판사로 자리잡은 시사영어사에서는 《초등학교 영어사전》과 《디즈니 그림영어사전》을 내놓았는데, 어린이에게 친숙한 디즈니 그림을 이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디즈니...》는 나열식이 아닌 주제별로 나누어 단어를 설명해 학습효과를 높이고 있다. 채치있는 상황그림이 돋보이는 계몽사의 사전이나 김병원 교수가 집필한 《어머니와...》는 96년 1월부터 3개월간 선보인 대표적인 어린이 영어사전이다.

이들 어린이 영어사전은 대부분 알파벳순서로 단어를 찾는 일반적인 사전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사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맞춘 주제별 사전도 선보이고 있다. 집(HOUSE)이라는 장에는 거실, 부엌, 정원 등에 놓여 있는 물건에 단어를 표시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상 생활을 문장으로 묘사하는 식이어서 어린이들의 흥미를 끈다.

어린이 영어사전의 출간에는 많은 어려움

이 있다. 그 첫번째 난점이 보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의 눈높이 차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시각화를 꼽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사전이 이 원칙에 따라 그림을 많이 넣었다. 그렇지만 현재 사전이 이용하고 있는 삽화 형태를 제외하고도 사진이나 다른 방법의 그림으로 시각화의 방법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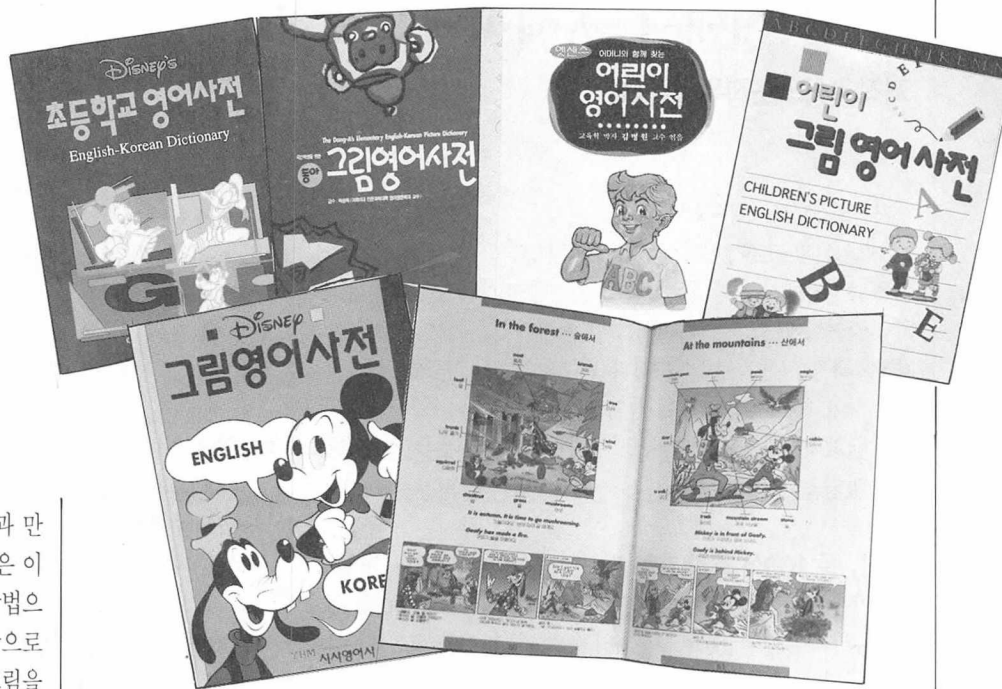
### 제작상 어려움이 많아

또 하나의 어려움은 교육과정과 유리된 사전 형식이다. 사전을 만들던 초기에는 ELT 교재(동양권 어린이 영어교육교재)에 의존하고 있었다. 다행히 최근에는 '초등학교 영어연구회'와 교육부가 함께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지침을 내놓아 영어사전의 기본틀이 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3학년 과정에서 주로 듣고 말하기로 운용하고, 6학년이 되어서야 알파벳을 배우도록 하고 있어 알파벳으로 단어를 찾는 방식의 영어사전과는 모순된다.

“사실 어린이들이 사전을 찾아가며 공부를 한다는 건 말뿐이기 쉽습니다. 때문에 지면활용은 그림이 가장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는 CD-ROM이나 오디오 사전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시사영어사 어린이 영어팀의 김부연씨의 설명이다. 사전과 테이프를 함께 내놓은 동아출판사의 사전이나 CD-ROM과 함께 출간한 시사영어사의 《초등학교 영어사전》은 그런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작상의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다. 원색그림을 이용해야 하는 어린이용 사전에는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투여돼야 하기 때문이다. 군소출판사들이 어린이 사전이나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은 이때문이다. 이외에도 열악한 출판계 현황이나 치열한 경쟁으로 어린이 영어교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소 마련이 어렵다는 점과 단기적인 제작과정은 문



외국어 교육 열기에 맞춰 초등학생용 영어사전이 앞다퉀 출간되고 있다.

제로 지적된다.

요즘의 출판계에서는 영어를 소재로 하면 안되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다. 어린이 영어사전의 출간 붐 역시 이런 출판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의

주춧돌이 되는 사전만큼은 이런 일시적 유행의 징후로서가 아니라 성의를 가지고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이현주 기자

## 안락한 생활을 위한 ‘재테크’ 실용서

### 숨은 베스트셀러로 자리잡아

베스트셀러도 아니지만 대형서점 매장에 당당하게 한 코너를 차지하고 독자들에게 꾸준히 읽히는 숨은 스테디셀러들이 있다. 바로 재테크에 관련된 실용서들이다.

‘돈’을 벌거나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들은 “선비는 돈 이야기를 입에 담아서 안된다”는 전통적인 금기를 거부하고 안락한 생활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팔려나가고 있다. 그 내용도 점차 충실해지고 있어 일반인들에게 상당히 실용적인 재산증식의 지식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 투자 성공사례 등 실용가치 높아

재테크 관련서 중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분야는 부동산이다. 의식주생활의 하나이

기도 한 ‘부동산’은 지금까지 가장 투자가치가 높은 분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사 박용수씨가 쓴 《시민을 위한 부동산 이야기》(김영사)는 부동산 투자의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라기보다는 부동산의 개념과 원리를 알기 쉽게 풀이한 해설서가 많다. 부동산의 관리와 투자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지니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자 하는 의도로 저술된 이 책은 경제·사회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투자와 관리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드물게 부동산에 관한 입체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는 이 책은 ‘부동산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다소 철학적인 화두를 던져주고 있기도 하다.

95년 초판이 발행된 뒤 예기치 않은 독자

# 모여 “책”을 만들고 함께 “미래”를 열어갑니다

생각해보면 전문직의 세계는 작습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편집 취재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바늘구멍에는 실이 들어갑니다.  
그 실은 낙타보다 작고 가늘지라도  
훨씬 더 길고 질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전문직의 세계는 작고 좁을지라도  
그 생명력은 길고 오래갑니다.  
서울편집디자인스쿨에는 전문직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 소신을 갖고  
평생 하기를 원하는 사람,  
어떠한 일에도 부러지지 않을 사람,  
마지막에 참 잘했다고 웃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서울편집디자인스쿨에 모여  
책을 만들고,  
함께 21세기를 열어갑니다.

| 정규과정  | 주말 정규과정  | DTP 특강과정  | 취재 전문반   |
|---|--|---|--|
| 정규과정<br>교육기간:5개월<br>(정규교육 3개월,<br>컴퓨터편집 2개월)<br>오전반 10:00-13:00<br>오후반 14:00-17:00<br>야간반 19:00-22:00<br>각반정원:30명<br>강의요일:월·화·목·금 | 주말 정규과정<br>교육기간:5개월<br>강의시간<br>토요일 15:00-21:00<br>일요일 10:00-16:00<br>각반정원:20명<br>교육과정<br>정규반과 동일 | DTP 특강과정<br>교육기간:8주<br>강의시간:19:00-22:00<br>각반정원:20명<br>강의요일<br>주5일(월~금)<br>교육과정<br>Illustrator · Photoshop<br>전문과정 개설 | 취재 전문반<br>교육기간 :<br>여름 · 겨울 방학<br>강의시간<br>오전반 10:00-13:00<br>오후반 19:00-22:00<br>각반정원:20명<br>강의요일<br>주5일(월~금) |

취업처 : 신문사, 잡지사, 기업체홍보부 및 사보기획실, 단행본, 출판사, 학습지, 편집대행사, 협회 등

국내 최초 최대의 편집 교육기관  
한국 출판학회추천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매체협회지정교육기관  
**서울편집디자인스쿨**  
문의(代) 672-1841,2 FAX 637-0441  
자동응답전화 704-4450(100\*)  
전철2호선 영등포구청역 5번출구방향 100m

들의 꾸준한 호응으로 최근 전원주택과 경매부동산, 거시적 시장분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개정판을 낸 이 책은 부동산을 단순한 투기의 대상으로 여기는 세대속에서 부동산의 '삶의 터전으로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현직 일간지 부동산팀 팀장인 최영진씨의 《성공적인 자투리 땅 투자법》(명진 출판)은 무미건조하고 답답한 아파트를 벗어나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땅집'에 도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지어야' 성공적인 재테크가 되는 것인지 탐구하고 있다.

이 책은 기존의 땅이나 주택의 개발법을 비롯, 대지선정에서 관련 세금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개발의 모든 절차와 주의점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단독주택, 전원주택, 상가 등 다양한 투자 성공사례들을 소개함과 동시에 사진자료와 자세한 도면까지 수록하고 있어 실용적인 가치가 돋보인다.

《부동산엔 정가가 없다》(갑진출판사)는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인 정광영씨가 경험을 바탕으로 내집 마련에서부터 헌집으로 새집 만들기, 부동산 투자자의 주의사항들을 사례를 곁들여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 언제라도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 상식에 관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부동산 재테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더난 출판사)도 서점가에서 인기 있는 부동산 관련 실용서이다.

## 재테크의 새로운 방법, 경매

부동산의 침체와 증권시장의 지지부진으로 재테크의 새로운 방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경매'에 관한 책들도 최근 속속 출간되고 있다. 《당신도 이틀이면 경매박사》(매일경제신문사)는 현직 신문사 부동산 담당기자가 쓴 책으로 경매에 입문하는 초보자들을 위한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경매의 기본개념에서부터 권리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경매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부록에는 낙찰된 경매 물건의 실제사례와 성업공사 공매 가이드, 전국 등기소 및 관할구역 현황 등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법원 경매부동산 사는 법》(심우)은 조금

전문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경매 안내서이다. 초보자와 몇차례 응찰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씌어진 이 책은 특히 부동산 등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일반인들은 물론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종사자들에게도 지침서로 활용될 만하다. 《부동산 경매를 잡아라》(한국경제신문사) 역시 대장에서 독자들이 많이 찾는 경매 지침서이다.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소박한 방법은 저금리시대를 맞아 쏟아져 나오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 현직 은행원인 이준탁씨가 쓴 《저금리시대 재테크전략》은 소자본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는 일반인들을 위해 씌어진 책이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금융기관의 종류와 상품을 소개하면서 손쉽게 대출받는 방법, 세금을 절약하는 테크닉, 연말정산 방법, 신용카드 활용하는 법, 어음거래의 상식 등 총체적인 금융활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재테크에도 왕도가 있다》(새로운제안)는 독자들이 금융상품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과 저축목적에 맞는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명제 시대의 절세요령도 함께 설명하고 있다. 부록에는 전화를 통해 금융상담을 하는 요령과 각종 금융기관의 전화번호도 안내하고 있다.

《돈테크》(더난출판사) 역시 현직 은행원이 쓴 책으로 복잡해진 첨단금융시대에 개인 및 가계의 금융자산을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생활금융 지침서이다. 이밖에 과거에 비해 다소 위축되기는 했지만 《주식 성공법을 찾아라》(국일증권연구소), 《증권투자 길라잡이》(더난출판사) 등 주식투자 실용서들도 꾸준히 팔리고 있다.

최근 출간되는 재테크 관련서들은 단순하게 '돈 굴리는 법'만을 소개해온 과거의 기능주의적인 것에서 벗어나 '돈'에 대한 철학과 투명한 우회적인 생산방식으로서 재테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씌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 허 연 기자